

금리 오르자 은행·보험주 웃었다… 고금리 방어주 ‘부각’

위험자산서 예금·채권으로 자금 이동
이달 KRX 보험·은행 지수 동반 상승
주주환원으로 ROE 높이는 기업 유리

미국 금리선물 시장에서 보는 9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확률은 물가 발표 전날(11일) 72%에서 하루 만에 87%로 뛰었다. 일본은행(BOJ)도 이번 주 금리인상이 유력하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0일 3대 정책금리를 0.25%포인트(p)씩 인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인상에 나서서 기준금리를 3.00%로 0.25%p 올렸고,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후 시장 금리도 급등하고 있다. 1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전거래일 보다 1.1bp 상승한 4.025%에 장을 마쳤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에는 대체로 악재다. 이자 비용 부담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할인율(미래에 벌 돈의 가치를 현재 기준으로 낮춰 계산하는 비율) 상승으로 인한 기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뉴시스

업가치 하락, 여기에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탈까지 겹치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보험·은행 등 금융주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1~14일) KRX보험지수는 2.09%, KRX은행지수는 5% 상승했다. 이 지수에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한화생명 등 11개 종목

이 편입돼 있다. 이 기간 동안 상승한 KRX 업종 지수는 KRX 건설(5.63%), KB300 금융(3.30%), KRX 운송(2.35%) 등을 포함해 5개에 그쳤다.

우선 보험사는 금리 상승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다. 보험사는 운용자산의 상당 부분을 국공채 등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이자수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증권사는 금리 상승으로 투자

자금이 주식 등 위험자산에서 은행 예금이나 채권으로 이동할 경우 주요 수익원인 브로커리지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재무건전성도 좋아진다. 보험사는 고객에게 먼 미래에 돌려줄 보험금을 회계상 부채로 잡는데, 금리가 오르면 이 부채의 현재 가치 평가액이 줄어든다. 여기에 도수치료의 관리 급여화와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치료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으로 손해율과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보험 업종은 금리 상승에 따른 펀드멘털 개선 기대감 및 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의 방어주 성격이 부각됐다”고 말했다. 그는 “실적 측면에서도 수익성 관리에 따른 장기 손해를 하려세 전환, 손실 계약 비용 환입에 따른 연간 이익 개선 등 바텀 아웃(Bottom out)이 확인되고 있는 점이 보험주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역시 대출금리 인상에 힘입어 순이자마진(NIM)이 확대되는 반사이익을 얻는다. 그 결과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게 되면 자기자본이익률(ROE)도 좋아

진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지난주 시장 금리 상승 국면에서 고금리 방어주로 인지되는 은행과 보험은 양호한 흐름을 기록했다”며 “FOMC 결과에 따라 상승 탄력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단은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수익률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했다.

하나증권은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엔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일 수 있는 기업을 주목하라고 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글로벌투자분석실장은 “금리 상승기에는 (빚을 내 투자하는) 기업의 외형 성장보다는 주주환원을 통해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기업의 주가 흐름이 좋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3년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당시 S&P 500에서 ROE 상승 폭 상위 3개 업종은 평균 10.4% 오른 반면, 하위 3개 업종은 4.7% 하락했다. 국내에서는 기아·LG·현대글로비스·GS 등이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국민연금 새 CIO에 이규홍… 투자전략 주목 원화 강세에 갈린 음식료주… 해외 비중 변수

민간 운용사·공적연기금서 경험
신임 복지이사에 김대순 전 본부장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을 이끌 새 수장에 이규홍 전 사학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장(CIO)이 선임됐다. 민간 자산운용사와 공적연기금에서 운용 경험을 쌓은 인사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이끌게 되면서 향후 자산배분과 투자전략 변화에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규홍 전 사학연금 CIO를 신임 기금이사, 김대순 전 국민연금공단 정보화본부장을 신임 복지이사로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두 신임 이사는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임기는 2년이며 직무 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신임 기금이사는 삼성자산운용과 DB자산운용, 이스트프린스자산운용(현 카디아자산운용) 등을 거쳐며 민간 운용업계에서 투자 경험을 쌓았다. 이후 NH-A



이규홍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김대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

mundi자산운용 CIO와 아센다스자산운용(현 캐피탈랜드 투자운용) 대표이사를 거쳐 사학연금공단 CIO를 역임했다. 법무법인 세종 기업금융부문 고문으로도 활동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내의 주식과 채권뿐 아니라 사모펀드(PEF), 부동산·인프라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의 사결정과 운용을 총괄하는 자리다. 국민연금의 자산배분과 위탁운용사 선정 등이 국내 자산운용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임 CIO의 투자 방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특히 민간운용사와 공적연기금에서도 두 CIO를 경험했다는 점이 이 신임 기금이사의 특징이다. 시장 상황에 따른 자산배분은 물론 연기금 특성에 맞는 장기 투자전략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경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신임 기금이사는 민간 자산운용 경험과 공적 연기금 운용 경험을 두루 갖춘 자산운용 전문가로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임 복지이사는 국민연금 내부 출신인 김대순 전 정보화본부장이 임명됐다. 복지이사는 복지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김 신임 복지이사는 1999년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해 전략경영부장, 미래혁신기획단장, 정보화본부장 등을 거쳤다. 노후준비지원과 장애인지원 등 공단의 복지사업 전반을 맡는다.

/신하은 기자

하나증권, 업비트 글로벌과 디지털자산 협약

상품 설계·인프라 구축 등 협력
싱가포르 거점 사업 기회 발굴

하나증권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업비트 글로벌과 디지털자산 및 금융 분야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비트 글로벌은 업비트의 해외 디지털 자산 사업을 총괄하는 싱가포르 소재 지주사다. 양사는 하나증권의 금융·자산운용 역량과 업비트 글로벌의 디지털자산 기술 및 해외 네트워크를 결합해 신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협력 분야는 디지털자산 운용 사업모델 개발을 비롯해 관련 상품·서비스 설계 및 출시,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공동투자 등이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여부와 방식은

각국의 관련 제도와 시장 환경을 고려해 결정한다.

싱가포르를 글로벌 사업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하나증권은 현지에서 자산운용사 HAMA(Hana Asset Management Asia)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비트 글로벌도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해외 디지털자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양사는 현지 네트워크와 보유 라이선스 범위 안에서 협력 분야를 단계적으로 넓힐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하나증권이 추진 중인 STO 사업과도 맞닿아 있다. 하나증권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전통 금융상품을 토론티 방식으로 발행·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강성욱 하나증권 대표는 “STO 제도와



정영균 하나증권 IB그룹장(왼쪽)과 김국현 업비트 글로벌 대표가 11일 디지털자산 및 금융 분야의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증권

속도에 맞춰 발행 플랫폼 등 관련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내년 STO 시장 본격화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국현 업비트 글로벌 대표는 “양사가 보유한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환율 급락, 해외 비중 클수록 주가 부진

원화값이 뛰면서 국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식음료 관련주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원화값 강세로 원재료 상승 부담과 매출 확대를 노릴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각 사 2분기 실적 발표일 이후(8월 11일~9월 14일)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5.34%)과 비교할 때 빙그레(22.94%)와 롯데월드(12.50%)는 나란히 웃은 반면 삼양식품(4.47%)과 KT&G(-3.78%)는 울상을 지었다. 다만 농심(5.44%)은 코스피 상승률을 근소하게 웃돌았다.

실적만 놓고 보면 다섯 곳 모두 합격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롯데월드프드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8.5%, 같은 기간 대비 KT&G는 18.5%, 삼양식품은 46.7%, 농심은 47.6%, 빙그레는 159.9% 각각 증가했다. 시장 기대치와 비교해도 대체로 웃돌았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롯데월드프드가 35%, 빙그레가 26%, 농심이 16%, KT&G가 5% 각각 상회했고, 삼양식품도 컨센

서스에 부합했다.

증권가는 원화 강세가 주가를 가른 것으로 분석한다. 원·달러 환율은 3분기 들어 13.22% 떨어졌다. 환율 하락은 통상 수출기업에 악재다. 달러로 번 매출을 원화로 환산하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음식료 업종은 원재료 대부분을 달러로 수입해, 원가절감 효과는 업종 전체가 고르게 누린다. 결국 해외 매출 비중이 클수록 환산손실이 원가절감분을 넘어서고, 낮을수록 원가절감 효과만 남는 구조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음식료 업종은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고 외화 부채가 많아 원화 강세 시 투입 원가 하락과 외화 순부채 평가손실 축소 효과가 나타난다”며 “다만 최근 해외 사업 비중이 커지며 종목별 환율 영향력은 엇갈리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가 폭락이 컸던 세 종목은 해외 매출 비중이 컸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2025년 연간 기준 해외 비중은 삼양식품 80%, KT&G 50%(담배기준, 연결 기준 33%), 농심 44%(해외법인+수출), 롯데월드 23%, 빙그레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아영 기자 aykim@

NH투자증권, 가지농가 찾아 일손돕기 봉사

배광수 사장·임직원 30여명 참여

NH투자증권은 지난 12일 광명시 하안동의 가지 재배 농가에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배광수 NH투자증권 사장과 WM사업부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가지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잎 정리와 손지르기 등의 작업을 도왔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가 지원 프로그램인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의 하나로 마련됐다. NH투자증권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함께하는 마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농촌 일손돕기 외에도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과 마을 숙원사업 지원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배 사장은 “농협그룹의 일원으로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농·상생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